

「2023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백일장 분야

작품 제목

정직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작품 본문

정직이란 무엇일까? 정직을 알기 위해선 청렴을 알아야 한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이 고결하며, 탐욕이 없다라는 뜻이다. 청렴에는 여섯 가지 덕목이 있는데 바로 정직, 절제, 공정, 배려, 책임, 약속이다. 정직은 사실 청렴과 연관이 많은데 정직은 청렴의 기반으로 정직하지 못하면 청렴하지 못한다. 청렴은 탐욕이 없다는 뜻인데 사실 인간은 탐욕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 청렴하는게 쉽다곤 할 수 없다.

나도 인간으로서 정직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청렴에 대해 관심을 갖기 오래 전 나는 청렴이라곤 볼 수 없는 이기적인 인간이었다. 가위바위보도 이길 때까지 했으며 지면 온갖 방법을 써 결국 이기게 되었다. 나의 승부욕은 나조차도 절제하지 못했으며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지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았다. 이러한 내가 동생의 엄청난 약점을 알게 되었다면 어땠을까? 나는 이 비밀을 까먹지 않기 위해 일기에 기록을 해 냈으며 동생이 나의 털 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비밀을 엄마한테 이르겠다면서 협박을 해 원하는 것을 얻었다. 다만 나도 사람이라 동생에게 나의 약점을 들키면 상황이 하루 아침에 바뀌어 결국은 서로의 약점을 비밀로 하자는 협의 끝에 끝났다.

하지만 둘 중 누가 한 명의 약점을 알아내면 앞서 설명했던 루틴이 반복 됐고 이 짓거리를 6년이나 해 왔다. 지금 생각하면 뇌물을 받아 비밀로 해줬다는 게 6년이라니 참 놀라울 뿐이다.

나는 아빠가 알려준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이 루틴이 사라졌는데 바로 남명조식 선생님의 청렴 정신이다. 남명조식 선생님께서는 당시 왕들에게 벼슬을 받았지만 거절하고 제자들을 키우는데 힘쓰신 청렴을 대표적으로 실천하신 분이다.

훗날 남명조식 선생님의 제자들은 임진왜란 때 나라가 이기도록 큰 활약을 한 정탁 등도 있다.

남명조식 선생님께서는 성성자라는 움직이면 소리가 나는 물건을 허리에 두르고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면 자신이 했던 행동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행동 하나 하나를 세심하게 살피며 자신이 청렴한지 살펴봤다 한다.

나는 누군가는 자신의 행동 하나 하나를 정직한지 살피며 살았는데 정작 나는 6년 동안이나 청렴에 가까워지긴 커녕 멀어지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며 이젠 실수할 때가 있지만 나름대로 내가 했던 행동과 말을 되살피며 열심히 청렴을 실천하는 중이다.

인간은 실수를 늘 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는 거고 그 경쟁을 이기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돈으로 표현하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정직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 눈 앞에 있는 뇌물로 인해 항상 부정부패의 방에 갇혀 있지 않다.